

〈이삭 - 복의 계승〉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1/12(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18

1. 이삭은 아버지보다 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번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는 말씀(창 22:6)을 토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적어도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120세 가까이 된 노인에게 불과한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번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갑니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번 질문을 통해,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목원들이 한번쯤 해봄을 통해 우리의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단순히 '제가 만약 이삭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단답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 '순종'의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2.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한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질문 역시 자칫 '신앙이요', 혹은 '재산이나 집이요' 식으로 단답형의 질문에 그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①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내 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② 딱 한가지 물려준다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일까?

사실,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좋겠지만, 의도치 않은 답변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목원들의 다양한 대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목자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질 유한한 존재'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정말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배우라' 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모습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3.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거나 새롭게 결단 혹은 다짐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목자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목자의 마음에 남는 포인트' 가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고 마음을 때리는 포인트는 청중들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